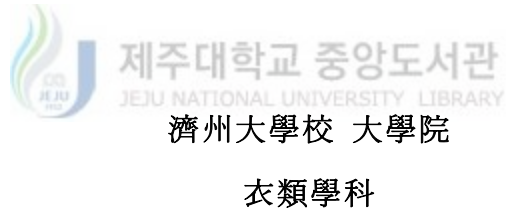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의
서사적 해석



白 殷 珍

2003年 6月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의
서사적 해석

指導教授 張 愛 蘭
白 殷 珍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3年 6月

白殷珍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印
委 員_____印
委 員_____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6月

목 차

국문초록

표 목차

그림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7
1.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의 정의	7
2. 서사의 개념	11
3. 미케 발(Mieke Bal)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	13
4.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 의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코드	16
1) 우발성(Contingency)	16
2) 픽진성(Verisimilitude)	18
3) 다문화성(Multiculture)	20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	22
1. 우발성(Contingency)	22
2. 픽진성(Verisimilitude)	27
3. 다문화성(Multiculture)	32

IV. 결론 및 제언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4



국 문 초 록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의 서사적 해석

현대 사회가 다양한 생활 방식과 개성추구를 중시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전달자로서의 패션도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인은 이야기가 폭주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현대인의 심미적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산업적 역할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난 새로운 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해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과 같이 혼재된 디자인의 용어를 정립하고, 이 용어를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미케 발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을 차용하여 현대패션에 내러티브하게 전개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패션 흐름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혼재된 양식의 한 신조어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지역의 복식 특징을 차용·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셔링, 프릴, 러플, 레이스 등을 첨가시킨 부드럽고 여성스런 로맨틱한 분위기의 디테일과 트리밍을 콜라주, 중첩, 조합, 절충 등의 기법을 통하여 표현된 디자인이라 정의 내리고자 한다. 즉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며,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장식적이고 회고적인 스타일의 선택 및 오리엔트 지역 국가들의 복식형태의 특징과 민속적인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차용·재배치함으로써 구성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패션에 내러티브하게 전개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을 해석하기 위해 미케발의 서사이론을 차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발성, 팝진성, 다문화성으로 코드화 할 수 있다.

첫째, 우발성이란 불확실성이나 우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의미에서의 ‘그 존재, 사건, 인물 등에 있어서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 형태의 극소화, 생략, 변형, 조합, 구조적 해체 및 재구성, 그리고 형태의 왜곡 및 과장이라는 스토리로 존재가 매우 모호하고 파편화된 단편들의 조합을 통하여 확실치는 않지만 그 무엇에 의존하고자 표현된 것을 우발성이라 코드화한 것이다.

둘째, 팝진성이란 현실과의 일체감, 즉 사실적 실감을 뜻하지만 현실과 꼭 같음을 의미하지 않는 일종의 관습으로,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 묘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팝진성은 ‘실제 있었던 일’과의 관련이 아니라 ‘있을 듯한 일’과의 관련 하에서, 서사물이 현실과 얼마나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습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형태 및 실루엣 유지, 단편들의 조합이라는 스토리로 작품 주제 결정요인인 모티브의 도입을 통하여 현실과의 일체감, 사실적 실감을 정당화하려는 표현을 팝진성이라 코드화한 것이다.

셋째, 다문화성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이 과거의 문화적 이분법으로의 탈피를 뜻한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각 문화권의 단편화된 이질적 요소들의 중첩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연속된 혼합체내에서의 통합이란 스토리로 다양성의 공존 및 교차문화성이 표현된 것을 다문화성이라 코드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실험성을 추구하며 혼재된 양식으로 나타난 예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려본 것에 의의를 두었고, 서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대패션을 해석적 측면에서 미케 발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을 적용시켜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Keyword : 혼재된 양식, 로맨틱오리엔탈리즘, 미케 발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 우발성, 팝진성, 다문화성



표 목 차

<표 1> 연구모형	6
<표 2> 미케 발의 서사이론과 디자인 이론의 비교	15
<표 3>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 의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코드	21
<표 4>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	34



그림 목 차

(그림1)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	5
(그림2)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5	5
(그림3)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7	25
(그림4)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326	25
(그림5)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10	25
(그림6)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12	25
(그림7)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327	25
(그림8)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8	25
(그림9)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4	26
(그림10) Hoikusha, UKIYOE p.3	26
(그림11)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409	26
(그림12)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307	26
(그림13)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301	26
(그림14) Jean-Paul Gaultier, 「Collezioni」, Vol.84, 01-02 A/W p.255	30
(그림15) 청대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204	30
(그림16) Jean-Paul Gaultier, 「Collezioni」, Vol.84, 01-02 A/W p.251	30
(그림17) Khaled Couture, 「Collezioni」, Vol.93, 03 S/S p.338	30
(그림18) Blumarine, http://www.firstview.com , 03 S/S	30
(그림19)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Vol.92, 03 S/S p.361	31
(그림20) 삼성디자인넷, http://samsungdesign.net	31
(그림21) Valentino, 「Collezioni」, Vol.90, 02-03 A/W p.298	31
(그림22) Lanvin, 「Fashion News」, Vol.86, 03-04 A/W p.70	31

(그림23) 쌍영총 차마인물도, http://www.donga.hs.kr/susuk/koreaart/ggr-a4.htm	31
(그림24) Yohji Yamamoto, 「Collezioni」, Vol.89, 02-03 A/W p.294	31
(그림25)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421	35
(그림26) 무가 여자의 화제장속 모습, 「일본복식사」, p.191	35
(그림27)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207	35
(그림28) 몽골 포리아터 부녀의 몽골포와 두식, 「중국 소수민족 복식」, p.36	35
(그림29)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204	36
(그림30)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209	36
(그림31) Blumarine, http://www.firstview.com , 03 S/S	36
(그림32) Gucci, 「Collezioni」, Vol.89, 02-03 A/W p.156	36
(그림33) Emanuel Ungaro, 「Collezioni」, Vol.84, 01-02 A/W p.324	36
(그림34)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262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다양한 생활방식과 개성추구를 중점으로 하는 초정보화 사회로 변모된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현대 패션은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전달자로서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특히 새로움 추구에 가치를 두어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 및 실험적 시도 등을 통하여 전통과 규범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질적인 소재와 형태 그리고 여러 구성방법이 중첩되어 혁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패션이 세기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양식의 혼재된 표현으로 하나의 양식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내러티브(narrative)하게 전개된 아방가르드한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을 통하여 규명해 보기로 한다.

첫째, 현대사회는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 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 특히 인터넷 확산에 의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빠른 속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인류는 하나라는 지구촌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적, 동공간적인 글로벌(Global) 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다문화와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이념 속에서, 90년대 이후 발달된 테크놀로지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은 물질보다는 정신, 감정을 존중하게 되고,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게 되었다. 또한 9·11미국테러이후 그 충격에 대한 반동 현상으로 행복과 낭만, 낙관주

1) 김선영·임영자,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연구”, 「복식」, Vol.51호, No.6, 2001. p.148

의를 키워드로한 로맨티시즘(Romanticism)의 재현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서양인들이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고자 선택한 방법으로 '동양'을 먼 곳에서 존재하는 환상적인 타자로 대상화함으로써 '상상적 이상향으로서의 동양'을 꿈꾸게 되었다. 이는 동양에 대한 끊임 없는 호기심을 갖게 된 원인이 바로 '낭만화(romanticization)'이기 때문이다.²⁾ 즉 최근 등장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동양의 가치관, 문화전반에 대한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진 현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오리엔탈리즘 디자인은 아시아, 넓게는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민속의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서양인들의 호기심 충족 및 동양적 취미의 수준에서 수용된 것에 반해, 현대에는 다소 감각적인 느낌으로 여러 사상 즉 전통주의적, 자연주의적, 절충주의적, 미래주의적 개념이 혼재³⁾된 디자인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출현된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 디자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혼재된 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현대인이 이야기가 폭주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현대인의 심미적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산업적 역할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패션에서 안나 몰리나(Anna Molinari)가 2003 Blumarine 밀라노컬렉션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영감을 얻어 오리엔트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였고(그림 1),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3 꾸뛰르 쇼의 아이디어를 위해 아시아를 돌아다님으로써 오리엔탈적 모티브를 디자인에 내러티브하게 전개하였다(그림 2).

이와 같이 현대패션 디자인에도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내러티브하게

-
- 2) 성향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7-8
 3) 박상오, "오리엔탈리즘이 현대패션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8-9

표현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내러티브(Narrative)란 이야기의 방법을 의미하는 서사구조를 말한다. 즉 서사학(Narratology)은 이야기 일반에 관한 연구로 이야기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찾아내는데 응용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사⁴⁾란 이야기를 지닌 모든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구조주의 서사학자들은 이야기를 삶이나 현실의 허구적인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형식적, 체계적 구조로서의 이야기가 기능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이야기를 지배하는 코드(Code)와 전의(轉義; Trope)를 찾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⁵⁾

예를 들어, 미케 발(Mieke Bal)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⁶⁾은 서사 텍스트의 구조가 그러한 구조를 실현시키는 서사화 행위의 산물로,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에 내포되어 있는 이념적인 활동성과 미학적인 힘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력과 수사학적인 정교함 등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⁷⁾ 그러므로 비언어적 서사인 패션도 구조를 실현시키는 서사화 행위의 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예술양식을 구조적 서사이론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라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오리엔탈리즘 디자인에서도 다차원적으로 혼재된 경향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인 정립이 이루어져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이 재현되고 있지만,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적합한 디자인 용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언어적 서사로는 민담, 설화, 전설, 동화, 역사, 일기, 기행문 등이 속하고 비언어적 서사로는 영화, 만화, 오페라, 그림, 패션 등이 속한다.

5) <http://www.wisezine.com/php/wisefile/criticismdic/text.php?serial=306>

6) 기존의 이원적 서사 구조론은 텍스트의 사실만을 논의대상으로 한정시킨 이론

7) 김기우, "세 가지 범주로 서사 구조 이론의 새 가능성 제시 - 미케 발의 '서사란 무엇인가'", 내러티브, 제4호, p.29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혼재된 디자인의 용어를 정립함으로써 21세기의 패션흐름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혼재된 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위와 같은 의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혼재된 양식 표현의 한 예로 로맨티시즘과 오리엔탈리즘의 형식과 의미의 조합을 통하여 파생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란 신조어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차적으로는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용어를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차용하여, 내러티브하게 전개된 로맨틱오리엔탈리즘 작품들을 분석·해석함으로써 21세기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경향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기로 한다.



-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혼재된 양식의 한 예인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규명한 후,
- 둘째,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고찰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미케 발의 서사이론을 바탕으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특성을 코드로 설정한다.
- 셋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코드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디자이너 작품들을 선별한 후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서사적으로 분석·해석한다.



(그림1) Blumarine.
<http://www.firstview.com>. 03 S/S



(그림2) Christian Dior. 「Collezioni」 .
Vol.93. 03 S/S p.20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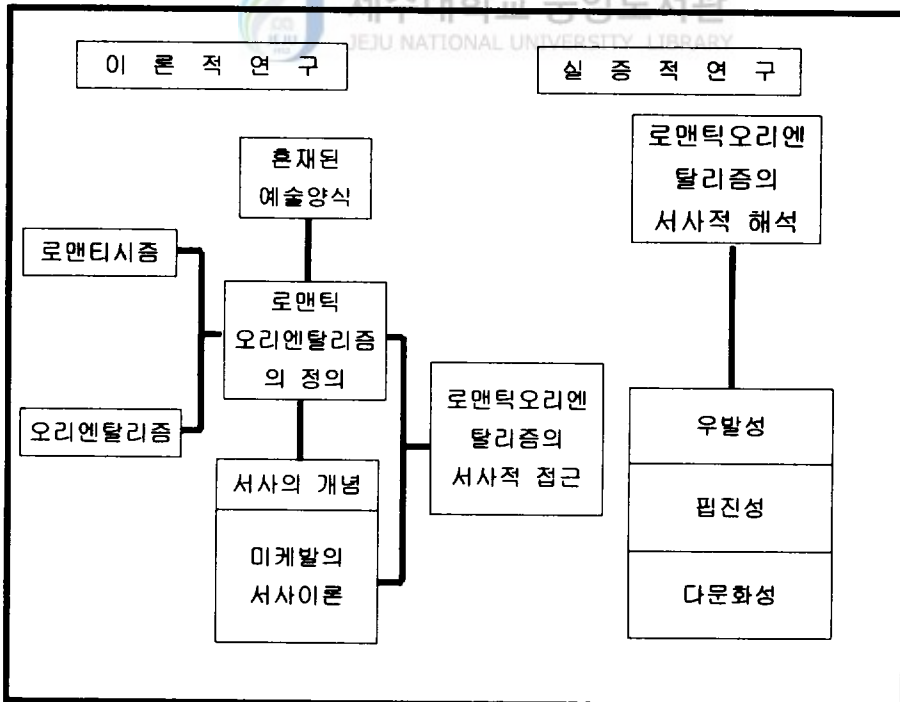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기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는 문학, 미학예술, 철학, 역사 등의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 및 서사의 개념을 규명 한 후, 미케 발의 삼원적 서사구조론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을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 2000년 이후 패션전문잡지 「Collezioni」, 「Collections」, 「Collezioni Donna」, 「Gap」, 「Fashion News」와 검증된 인터넷 패션 사이트 등에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패션디자인자들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서사적으로 분석, 해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표 1>과 같다.

<표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로맨틱오리엔탈리즘(Romantic Orientalism)의 정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개념 고찰을 통하여 혼재된 양식인 로맨틱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정의를 규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로맨티시즘(Romanticism)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 광의의 로맨티시즘은 로맨틱한 환상이 충만한 예술 경향의 총칭이며, 협의로는 19세기 전반에 유럽 제국에 퍼졌던 예술사조⁸⁾⁹⁾로, 정확한 묘사, 엄격한 구성보다는 감정이나 공상, 내면의 '생'이 자유롭게 표현된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맨티시즘은 이성보다는 인간의 충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야성적인 것, 억제되지 않은 것이 주된 성향이었고, 스타일은 산업혁명시대의 현실생활로부터 유리(遊離)된 덧없는 꿈과 섬세한 감정의 표현수단이 되어, 조인 가슴, 벨형 스커트, 지고형 소매 등으로 자신을 구상화하여 천사나 나비를 닮으려고 하였던 문화적 낭만주의가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서 로맨티시즘의 스타일은 19세기 초기 프랑스 왕정복고 시대의 양식으로, 여성스러운 장식 즉 가는 허리, 작은 퍼프 소매 혹은 레그 오브 머튼 소매가 달린 드레스에 케이프나 피슈를 걸치고 본닛을 쓴 스타일로 구성되었다.¹⁰⁾

다음으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해 살펴보면, 1830년대 프랑

8) 당시의 예술가로서 문학의 워즈워즈, 바이런, 미술에서는 들라크루아 등이 대표적이다

9)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대사전」, 도서출판라사라, p.258

10) <http://samsungdesign.net/Report/ceoinfo>. Romanticism 시대의 복식

스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 동방취미,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하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대표하기도 한다.¹¹⁾ Edward W. Said가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¹²⁾ 즉 동양과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서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한 것이다. 동양은 단지 유럽에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로우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였고, 유럽문화의 호적수,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곧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기술한 내용을 보면,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진 존재론적이지 않다는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

그래서 ‘서양적’이란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인 것을 의미하고, ‘동양적’이란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 신비적인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기호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의 원인이 단적으로 ‘낭만화(romanticization)’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서구인들이 동양을 먼 곳에 존재하는 환상적인 타자(他者)로 대상화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리엔탈리즘이란 동방적 취미나 동방적 정서 혹은 동방

11)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21권, 동아출판사, 1983, p.283

12) Orient란 인도 인더스 강 유역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고대에는 그리스지방을 의미하였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이후 인더스강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근대이후 이집트·아라비아·시리아·팔레스타인·이란 등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켰으며, 현대에 와서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 인도와 중국·한국·일본까지를 포함하는 근동·중동·극동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Orient 지역을 규정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1993, p.152

13)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7, pp.14-15

적 예술에 대한 애호를 의미하며, 지리적으로 터키 동쪽 지역의 국가나 민족이 가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복식 등 예술 전반의 표현 주제로 삼은 것을 말한다.¹⁴⁾

이상의 두 양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혼재된 양식인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리라 본다.

현대의 로맨티시즘에 대한 의의는 한 시대를 음미하던가 어떤 분야에 하나의 양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상이나 주의로써 넓게 평가되는 말이 아니라, 과거 로맨티시즘 시대의 낭만적 아름다움을 연상케하는 듯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물질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이 역설적으로 느긋해지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그러므로 현대에 나타난 로맨티시즘은 기능적이고 캐주얼하며 확실적인 스타일에 대해 장식적이고 회고적인 스타일로, 프릴이나 러플, 레이스 등을 사용하여 표현된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의미한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오리엔탈리즘은 다변화된 복잡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복합적인 다중문화가 형성되면서 여러 사상 즉 전통주의적, 자연주의적, 절충주의적, 미래주의적인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남으로써 문화의 다양한 스타일들이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표현된 재치 있는 스타일로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첨단화, 기계화, 개인화로 메말라 가는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사랑, 순수, 정겨움, 낭만 등의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감정으로 표현하고자하는 갈등 속에서 등장한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 지역의 복식 특징을 차용·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셔링, 프릴,

14) 성향숙, op, cit., pp.7-8

러플, 레이스, 프린트 등을 첨가시킨 부드럽고 여성스런 로맨틱한 디테일과 트리밍을 콜라주, 중첩, 조합, 절충 등의 기법을 통하여 표현된 디자인을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라고 정의 내리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며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장식적이고 회고적인 스타일의 선택과 오리엔트 지역 국가들의 복식형태의 특징과 민속적인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차용·재배치함으로써 구성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사의 개념

현대 사회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현대인을 서사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서사란 이야기를 지닌 모든 것과 삶의 조건을 의미하므로 서사 이론은 모든 서사물을 대상으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사는 소재를 선택(selection)하고 배열(order)하는 과정이며, 의미가 형성된 요소의 선택과 배열의 방법에 따라 서사의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야기의 소재라도 배열의 구성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담화로 표현 될 수 있다. 또한 선택한다는 것은 역으로 선택되지 않은 것의 생략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정한 요소들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선택된 요소만으로도 일상적 삶과 예술의 경험에서 터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생략된 부분을 스스로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¹⁵⁾

예를 들어 로맨티시즘과 오리엔탈리즘이 혼재되어 나타난 현대 패션도 로맨티시즘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모티브를 선택하고 배열함에 있어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 어떤 부분은 선택 혹은 생략하기도 하므로,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서사물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지만 매체의 특성이나 문학적 관습 및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즉 서사 행위는 그 당시의 관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현대인들의 서사에 대한 이해도 그 당시의 관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습은 서사의 이해에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어느 정도 제한하므로, 그 관습을 벗어나게 되면 작가와 독자간의 의사소통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15) 오탁번, 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p.38.

따라서 서사를 이해하는 일은 그림조각 맞추기 놀이에 비유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서사는 개수가 모자라는 그림조각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맞추어 그리는 것으로, 그림조각이 없는 빈 곳은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본다.¹⁶⁾

즉, 서사의 비지정영역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서사를 이해하게 되므로, 서사관습과 서사는 상호작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사는 그 당시의 서사관습에 의해 만들어지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서사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점차적으로 기존의 서사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서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서사관습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최근 등장한 실험적인 작품이 바로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강한 이탈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관습이 그 실험성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사의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서사관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서사이론 중에서 기존의 이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은 글이 되기 이전의 소재 즉 글감이 되는 사건들인 이야기(story)와 작가에 의해 그 사건들이 서술된 방식의 총체인 담화(discourse)로 이루어져 결과인 텍스트만을 논의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즉 이야기에 대한 이론이기보다는 서사적 전달의 방식과 구조(담화)에 대한 이론이라 볼 수 있는 반면, 미케 발의 서사이론은 서사화 활동의 측면을 하나의 층위로 설정함으로써 서사 기술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에 유용¹⁸⁾하므로 그의 이론을 채택하여 본 연구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16) Ibid., pp.40~41.

17) Ibid., p.60

18) 김기우, op. cit, p.294

3. 미케 발(Mieke Bal)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

미케 발의 삼원론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은 '파블라'와 '스토리', 그리고 '텍스트'의 층위로 이루어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물론 서사화의 원리도 수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이다.¹⁹⁾

먼저, 파블라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사건의 연속으로, 서사의 기술 행동 과정 측면에서의 도구적 의미로 설명하자면, 파블라는 행위자, 시간, 장소 등 서사의 성분들이며 그들의 구성이다. 구성하는 성분으로는 논리적 사건의 연쇄를 두고 과정 즉 사건이라 하는 가변적 성분과 사건을 이루게 하는 고정적 성분인 대상으로 나누어진다. 대상은 다시 행위자, 장소, 사물로 나누어지고 사건의 선택에도 기준을 제시하며 선택, 변화, 대면으로 구분된다. 그 모든 항목은 서로 조율하면서 파블라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필수적 요건이 된다.²⁰⁾

그러므로 파블라는 '성분들'이라는 부개념으로, 디자인 이론에 접목시키자면 디자인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를 의미하고자 한다.

스토리는 특정한 방법으로 체계화된 파블라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는 파블라의 순차적 결과로 구조화된 것으로 서사물로서 구체화될 수 있는 성분들의 효과적 배열과 그 기능적 조합 상태를 말한다.²¹⁾ 현실에 있음직한 서사의 여러 요소들이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파블라라면 스토리는 그것의 순차적 재편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때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나 주제가 설정되며, 스토리의 조작 방식을 관점이라고 한다. 관점이란 파블라의 성분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법으로, 독자는 파블라의 관점에 의해 나름대로 스토리를 해석하게 된다.²²⁾ 미케 발은 그 과정에

19) 김기우, op. cit, p.294

20) 김기우, op. cit, p.295

21) 미케 발 저, 한용환, 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p.93

나타나는 현상에서 연쇄적 순차, 리듬, 빈도, 초점화 등의 여러 개념을 추출하였다. 특히 파블라와 스토리의 범주 차이를 사건의 연쇄적 순차의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여 주네트의 개념인 시간 변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즉 텍스트를 읽을 때 나타나는 이중선형성처럼 사건의 연쇄도 이중선형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물에서 연대기적 일탈의 기능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회상과 예견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였다. 회상은 과거 사건으로 잠시 전환하는 것이고, 예견은 사건의 진행 중에 미래의 어떤 장면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회상과 예견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회상 안에서 예견이 이루어진다. 즉 과거에 언급했던 내용을 통해 미래를 보는 기법이 의식의 흐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을 무시간성이라고 한다.²³⁾

파블라와 스토리의 변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연대기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여러 차원에서 시간의 문제에 접근해도 과연 파블라에서의 시간이란 어떤 것인가, 스토리와 파블라 사이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케 발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리듬이라는 항목을 두고 기존의 생략, 요약, 장면, 감속, 휴지의 개념에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 이론화하였다.²⁴⁾

그러므로 스토리는 ‘양상’이라는 부개념으로 디자인 이론에 접목시키자면 디자인 원리로서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의 선별, 조합, 배치를 의미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언어 기호로 구조화된 전체를 의미한다. 텍스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화자에 관한 논의이다. 미케 발은 먼저 화자가 작중 인물도, 내포작가도 아니라는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화자는 서사 행위를 끌어가는 기능이면서 언어학적인 주체’라고 주장한다.²⁵⁾ 이는 그 자신이 구분하는 서사 구조의 세 가지 층위를 이론 체계의 합리화처럼 여겼기 때문이

22) 김기우, op. cit, p.297

23) 김기우, op. cit, p.297

24) 김기우, op. cit, p.298

25) Ibid., p.215

다.26)

그러므로 텍스트는 '단어들'이라는 부개념으로, 디자인 이론에 접목시키자면 디자인의 코드로서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을 위한 우발성, 필진성, 다문화성의 코드를 의미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케발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을 차용하여 디자인 이론에 접목시켜 본 결과 다음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미케 발의 서사이론과 디자인 이론의 비교

서사	서사이론 및 디자인 이론		로맨틱오리엔탈리즘
서사의 성분 및 성분들의 구성	파블라 (성분들)	디자인 요소	로맨틱 요소 오리엔탈 요소
서사물로서 구체화될 수 있는 성분들의 효과적 배열 및 그 기능적 조합상태	스토리 (양상)	디자인 원리	로맨틱 요소 및 오리엔탈 요소의 선별·조합·배치
언어기호로 구조화된 전체를 의미	텍스트 (단어들)	디자인 코드화	우발성 필진성 다문화성

26) 즉, 파블라 - 행위자, 스토리 - 초점화자, 텍스트 - 화자의 대입이 그것인데, 그는 화자를 스토리 층위에서 초점화된 것을 언어로 서술하는 주체라고 본다. 발은 서사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서사의 기술 행위 측면에서 화자를 바라보는 듯싶다.

4.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 의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코드

1) 우발성(Contingency)

전통적인 논리에 의하면 서사물 내에서의 사건들의 계기성은 단순히 선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과적인 것이다. 인과성은 이미 제시된 부분과 제시된 부분 이후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 단락의 연속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 서사물에서는 이러한 인과성보다는 우발성이 더욱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 이유는 현대의 삶이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가치 규범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과거에 비해 매우 모호하고 파편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래서 인과적 질서를 상실한 세계, 혹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분명하고 규범화된 판단이 불가능해진 세계에 대한 서사적 대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⁸⁾

따라서 우발성이란 불확실성이나 우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 존재, 사건, 인물 등에 있어서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 형태의 극소화, 생략, 변형, 조합, 구조적 해체 및 재구성, 그리고 형태의 왜곡 및 과장이라는 스토리로 존재가 매우 모호하고 파편화된 사건들의 조합을 통하여 확실치는 않지만 그 무엇에 의존하려고 표현된 것을 우발성이라 코드화한다.

다시 말해서 파편화된 이질적 요소들간의 복합적, 지속적 조합, 변형을 통한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 창조와 자유로운 정신적 사고를 표현하고 기발한 착상이나 놀라움이 내포된 유머러스한 희극적 효과를 위해 기존 형태의 극소화, 변형, 조합, 구조적 해체 및 재구성, 균형과 대칭에서 벗

27)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p.346~347.

28) Ibid. p.347

어난 비구조적 실루엣, 그리고 의복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이 형태의 왜곡 및 과장을 통하여 해체된 새로운 형태의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예를 들어, 조나단 쿨러(Jonathan Culler)는 「구조주의 시학」에서 팝진성을 이루는 관습적 요소들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는 허구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으로, '현실적인 것' 그 자체, 즉 삶으로부터 직접 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적 팝진성으로, 상투적인 문화적 관습이나 지식 등으로 문화적 관습에 의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을 말한다. 문화적 팝진성은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 혹은 인과적인 필연성을 갖춘 행위나 지식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문학적 팝진성으로, 이는 이야기가 허구인가 아닌가하는 명시적인 확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연화하여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관습화된 문학적 장치를 말한다. 넷째는 작가가 어떤 서사물에서 사용한 장치들의 인위성을 드러냄으로써 관습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해 진정성에 이르는 공간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는 문학적 관습들에 의한 패러디이다. 작가는 기존의 문학적 관습들을 폭로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를 지배하는 관습화된 규약이나 믿음들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팝진성은 관습적 토대를 풍자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문학적 행위 역시 또 다른 관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³²⁾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형태 및 실루엣 유지, 단편들의 조합이라는 스토리로 작품 주제 결정요인인 모티브의 도입을 통하여 현실과의 일체감, 사실적 실감으로 정당화하려는 표현을 팝진성이라 코드화한다.

다시 말해서 동서양의 융합으로 인간 본연의 잠재적 의식인 자연에 대한 회귀를 갈망하여 현대문명과 과거 전통미의 조화를 추구하고 인간 본래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에 대한 열망을 위해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묘사, 기존 의복 형태, 실루엣의 유지, 변화하거나 단편들의 조합, 비구조적이며 레이어드 스타일의 착장방식으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32) Ibid., pp.459~461.

예를 들어,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는 「구조주의 시학」에서 뾰족성을 이루는 관습적 요소들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는 허구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으로, '현실적인 것' 그 자체, 즉 삶으로부터 직접 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적 뾰족성으로, 상투적인 문화적 관습이나 지식 등으로 문화적 관습에 의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을 말한다. 문화적 뾰족성은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 혹은 인과적인 필연성을 갖춘 행위나 지식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문학적 뾰족성으로, 이는 이야기가 허구인가 아닌가하는 명시적인 확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연화하여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관습화된 문학적 장치를 말한다. 넷째는 작가가 어떤 서사물에서 사용한 장치들의 인위성을 드러냄으로써 관습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해 진정성에 이르는 공간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는 문학적 관습들에 의한 패러디이다. 작가는 기존의 문학적 관습들을 폭로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를 지배하는 관습화된 규약이나 믿음들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뾰족성은 관습적 토대를 풍자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문학적 행위 역시 또 다른 관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³²⁾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형태 및 실루엣 유지, 단편들의 조합이라는 스토리로 작품 주제 결정요인인 모티브의 도입을 통하여 현실과의 일체감, 사실적 실감으로 정당화하려는 표현을 뾰족성이라 코드화한다.

다시 말해서 동서양의 융합으로 인간 본연의 잠재적 의식인 자연에 대한 회귀를 갈망하여 현대문명과 과거 전통미의 조화를 추구하고 인간 본래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에 대한 열망을 위해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묘사, 기존 의복 형태, 실루엣의 유지, 변화하거나 단편들의 조합, 비구조적이며 레이어드 스타일의 착장방식으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32) Ibid., pp.459~461.

3) 다문화성(multiculture)

최근 문화는 혼혈이며 다층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통합의 내러티브는 문화의 세계화 진전에 따라 문화의 혼용을 현실로 승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타자'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을 말한다.³³⁾

따라서 다문화성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으로 인해 과거의 문화적 이분법으로의 탈피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cosmopolitanism)³⁴⁾나 다원주의(pluralism)³⁵⁾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수용한 것을 말한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각 문화권의 이질적 요소들의 단편화와 중첩, 그리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연속된 혼합체내에서의 통합의 스토리로 다양성의 공존 및 교차문화성의 표현을 다문화성이라 코드화한다.

다시 말해서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으로 따로 또는 함께 존재하는 삶의 두 가지 영역이 통합되어 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 교차문화성이 보이는 전위적 스타일로 표현의 다양성과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 착장의 이중성을 콜라주, 중첩, 반복, 조합, 절충적으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33) http://gaebyok.wonkwang.ac.kr/%7Einmun/inmun_forum01_1126.html

34) 개인이 스스로가 소속하고 있는 공동사회 예컨대 촌락, 민족, 국가를 초월하여 자기를 바로 세계적 코스모 폴리스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 사해동포주의, 만민주의 또는 세계시민주의라고 함.

35) 사회가 근대화되고 발전해 감에 따라 시민의 취향은 복잡 다양해지고 시민의 활동분야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많은 분야로 세분화되며 또 각 분야는 기능상 전문화된다. 다원주의는 이들 각 활동 분야가 각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케발의 서사이론에 의해 설정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코드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 의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코드

미케발의 삼원적 층위	파블라	스토리	텍스트	
로 맨 틱 오 리 엔 탈 리 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플, 프릴, 모피 트리밍 · 격자무늬, 작은 점무늬 · 자카드 효과가 나는 화려한 직물 · 비치는 소재 · 꽃, 깃털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형태 극소화, 변형, 조합 · 구조적 해체, 재구성 · 형태의 왜곡 및 과장 	우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나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 ·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분명하고 규범화된 판단이 불가능해져 버린 세계에 대한 서사적 대응의 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릴, 레이스, 자수, 비즈 · 소수민족의 덧장식, 대를 두른 스타일, 술장식, 사이드 슬릿 · 꽃, 풀, 나무 등 자연주의적 문양, 아라베스크 문양 · 실키한 광택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형태, 실루엣 유지 · 단편들의 조합 	팝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과의 일체감, 즉 사실적인 실감을 뜻함. · 사실적 실감이란 일종의 관습으로 현실과 얼마나 동일한가에서 판단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주변 관습에 의해서 판단됨 · 자연화 개념 · 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백, 적, 흑, 황의 오방색과 기하학적 문양 · 지고소매, 미드웨이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요소들의 단편화, 중첩 · 이질적인 요소들을 연속된 혼합체 내에서 통합 	다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 · 과거의 문화적 이분법에서 탈피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

1. 우발성

(그림 3)은 2003년 S/S Christian Dior의 작품이다. 이는 중국의 머리 꽃이와 조화(彫花) 등이 장식된 양과두(兩把頭)³⁶⁾와 유사한 헤드드레스와 경극³⁷⁾적 분위기의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동양적인 이미지와 형태가 과장된 꽃과 깃털이 달린 벨형 스커트에 중첩된 러플을 어깨에 두른 로맨틱한 이미지에서 매우 모호하고 과편화된 단편들의 조합으로 인과적 질서가 파괴됨에 따라 규범화된 판단이 불가능 한 우발성이 표현되었다고 본다.

(그림 4), (그림 5)도 2003년 S/S Christian Dior의 작품이다. (그림 4)는 중국의 경극적 분위기의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동양적 이미지와 옷의 구성방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밑단에 여러 겹의 프릴이 달리고 형태가 과장되고 왜곡된 드레스, 그 위에 착용된 로맨틱한 이미지의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의 코트도 기존의 형태가 구조적인 해체로 인해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행운을 의미하는 동양적 이미지의 모란문양과 경극적 분위기의 메이크업, 치마단을 위한 동양적인 봉제기법으로 이루어진 케이프, 그리고 깃털장식이 달린 과장된 모자, 러플이 층층히 레이어드된 벨형 스커트 등의 이질적인 요소들의 조합에서 자유로운 정신적 사고로 우연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란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낙엽관목의 하나로 천황의 꽃이라고도 하며 모란문양은 부귀한 기품과 부의 상징이며 또한 사랑과 호의의 상징이며 희소식을 가져다주는 사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는 사랑의 상징으로

36) 만족 기혼 부녀의 전형적인 발식

37)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연극으로 베이징[北京]에서 발전하였다 하여 경극이라고 하며, 서피(西皮)·이황(二黃)2가지의 곡조를 기초로 하므로 피황희(皮黃戲)라고도 한다. 14세기부터 널리 성행했던 중국 전통가극인 곤곡(崑曲)의 요소가 가미되어 만들어졌다.

여겨져 왔다.³⁸⁾

(그림 6)은 2003년 S/S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색조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중국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흘겹 치파오와 같은 전통적 이미지에서 우연에 의해 생략된 비지정영역의 부분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더불어 이질적인 비치는 소재에서도 에로틱하면서 로맨틱한 여성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중국식 헤어스타일인 쌍계 위에 중국 소수민족인 머로족의 쓰개인 양매죽모에 크리스탈 장식을 한 헤드드레스에서 로맨틱한 이미지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그림 8)은 2003년 S/S Christian Dior의 작품들이다. 이는 일본의 경화되고 형식화된 건자(巾子)로 옷으로 다진 딱딱한 겹질(甲)로 만들었던 관(冠)³⁹⁾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형태를 최소화시킨 동양적인 이미지가 묘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경극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과 로맨틱한 분위기의 로브 위에 중첩된 프릴을 어깨에 두름으로써 서로 다른 파편들의 조합으로 인과적인 질서가 파괴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도 경극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과 새틴과 마틀라세(matelassé) 소재⁴⁰⁾의 조합,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변형된 형태의 왜곡뿐만 아니라 옷의 구성도 매우 모호하여 판단이 불가능한 우발성이 표현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는 2003년 S/S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그림 10)과 같이 일본 전통 기모노 및 가부키⁴¹⁾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

38) 한은혜, "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중국용단의 문양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39) 北村哲郎저 이자연역, 「일본복식사」, 경춘사, 1999, p.67

40) 이중직을 응용하여 요철의 무늬를 나타낸 직물

41)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연극으로 에도시대[江戸時代] 서민의 예능으로 시작하여 현대까지 약 4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가부키라는 말은 원래 가부쿠[傾く:放縱하다, 바람나다, 好色하다 등의 뜻]라는 동사가 명사화한 것이다. 근세 초기 고료에[御靈會]라는 종교행사와 함께 후류오도리[風流踊]라고 부르는 예능이 유행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즈모노 오쿠니[出雲阿國]라는 여자가 교토[京都]에서 가무를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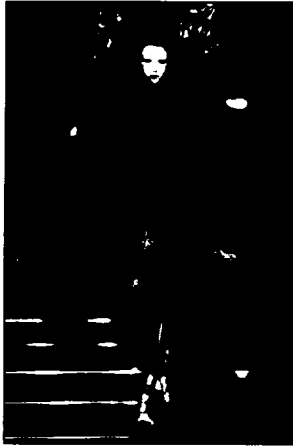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이는 카프탄(caftan) 스타일의 기모노의 기존형태를 구조적으로 해체시켜 비대칭적으로 재구성된 디자인이다. 즉 이질적인 색상의 조합과 비구조적인 형태, 그리고 일부분의 생략을 통하여 존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통 기모노의 이미지에서 생략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기모노 밑단에 러플을 중첩시킴으로써 전통의 본질적인 형태인 인체를 억압하던 구성법을 해체시켜 새로운 형태의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가 연출되었다고 본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은 2003년 S/S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전통 기모노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일본풍의 문양과 형태가 왜곡되고 과장된 비구조적인 실루엣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전통 일본의상은 일정한 형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직물 장식을 강조하게 되어 색채와 문양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특히 문양에 있어 전통적으로 화초문, 운문, 난초, 과일, 매화, 대나무, 백합, 벚꽃, 당초문양과 화조문양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며,⁴²⁾ 자연물이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연속무늬가 널리 사용되었다.(그림 11) 이러한 문양이 현대패션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특히 벚꽃을 단순화시킨 문양은 많이 사용되어 일본 취향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다.⁴³⁾(그림 12), (그림 13)

또한 가부키 메이크업을 기발한 착상으로 변형시켜 유머러스한 희극적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분명하고 규범화된 판단이 불가능한 동양적 이미지와 기모노 각 부위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체하여 형태의 왜곡 및 과장으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디자인이다.

42) 임복임,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 자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48

43)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23



(그림3)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7



(그림4)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326



(그림5)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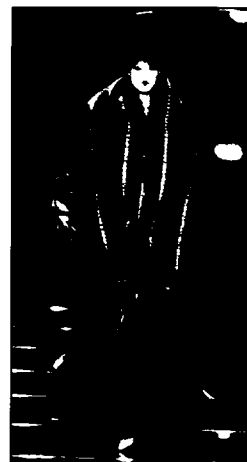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6)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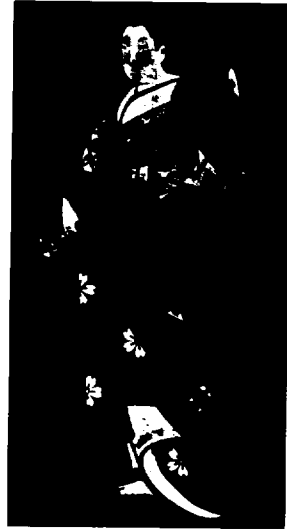
(그림7)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327



(그림8)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8



(그림9)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3,
03 S/S p.204



(그림10) Hoikusha, UKIYO E p.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11)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409



(그림12)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307



(그림13)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301

2. 팝진성

(그림 14)와 (그림 16)은 2001-02 A/W Jean-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그림 15)를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전통 치파오의 형태를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묘사로 동양적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실감이 나도록 표현된 디자인이다. 치파오는 만주족 고유의 의상으로, 전체나 부분적인 형태의 특성이 현대패션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치파오는 타이트한 형태에 다트를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형 드레스이다. 길이는 발목길리와 무릎길리, 소매는 긴 것, 짧은 것, 없는 것 등으로 다양하고 스커트 부분의 양 옆솔기에 슬릿이 있어 보행시의 움직임에 편리하게 한다. 카프탄 스타일로 구성된 (그림 14)는 여며지지 않은 슬릿 사이로 비춰진 가슴의 노출로 인한 에로틱한 이미지와 광택 있는 새틴 소재의 사용, 바지의 사실적인 꽃 문양의 자수에서의 로맨틱한 이미지 등에서, 현대문명과 과거 전통미가 조화를 이룬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의 '상하이 걸'에서도 중국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양과두를 변형시킨 헤어스타일에서 동양적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남성다운 재킷에 여성스러운 비치는 소재의 블라우스와 긴 슬릿이 있는 롱스커트, 그 안에 착용된 바지 등, 그럴듯하지 않은 단편들이 그럴듯하게 조합되어 동기화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은 2003년 S/S Khaled Couture의 작품으로, 레바논 민속의상을 변형시킨 디자인이다. 레바논의 민속의상은 복잡한 역사·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그리스·이집트·아라비아 등의 다양한 민속풍이 혼합되어 있음은 물론 고대와 현대가 동시에 표출됨을 볼 수 있다.⁴⁴⁾ 즉 청록과 자홍의 조화, 아라베스크 문양에서 동양적 이미지를, 더욱이 아랍의 술장식, 실버와 구리장식, 준보석의 장식단추 등의 사실적인 표현에서 동양적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⁴⁵⁾, 실키한 광택 소재의 사

44) 황춘섭, 「민속의상」, 수학사, 1992, p.59

45) 「Collezioni」, Vol.93, p.336

용에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림 18)은 2003년 S/S Blumarine의 작품이다. 이는 중국 치파오를 사실적으로 세부 묘사한 블라우스의 동양적 이미지와 층층이 중첩된 플라운스의 벨형 스커트의 로맨틱한 이미지의 조화가 동서양을 융합시킨 표현으로, 인간 본연의 잠재적 의식인 자연에 대한 회귀를 원하는 열망이 표출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9)도 동서양의 융합으로 인해 인간 본연의 잠재의식인 자연으로의 회귀가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S/S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그림 20)의 모로코풍의 샤르왈(Seroual)⁴⁶⁾ 실루엣과 같이 밑단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거나 넓은 바지통이 아랫단만 조여진 배기(Bagg) 스타일 혹은 트레이퍼리된 팬츠⁴⁷⁾에서의 동양적 이미지와 서구적인 베스트에서의 로맨틱한 이미지가 조화를 이룸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은 2002-03년 A/W Valentino의 작품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꽃문양이 프린트된 새틴 소재와 모피의 조화로 그럴듯하지 않은 요소를 그럴듯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레이어드된 벨형의 아웃 스커트와 붉은색⁴⁸⁾의 언더 스커트 위에 매듭이 있는 오비의 동서양적인 조화를 통하여 인간 본래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었다고 본다.

(그림 22)는 2003-04년 A/W Lanvin의 작품이다. (그림 23)의 쌍영총 벽화에 나타난 주름 치마(裳)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주름치마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간결하고 소박하게 표현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평면 구성된 치마에서의 동양적 이미지와 강조를 위한 깃털장식에서 좀 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치마를 사실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한복 치마의 여밈방법을 응용

46) 허리에 주름을 잡고 바지 끝을 조여 둥그스름한 실루엣이 보이는 팬츠, 하렘 팬츠라고도 함. 허리에 Kamerband를 맴

47) www.samsungdesign.net/report Folklore Fashion Fever IV-Morocco, p.7

48) 중국인들은 행운, 위엄, 결혼의 의미지로 받아들여 현대 패션에서도 중국풍의 디자인에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색채이다.

하여 볼륨감을 준 실루엣으로 현대문명과 과거 전통미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는 2002-03년 A/W Yohji Yamamoto의 작품으로, 이세이 미야케가 80년대 의복에 도입한 후 현재까지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는데 이용한 '기리카미'기법⁴⁹⁾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이는 의복에 기계 주름을 잡아 독특한 조형미의 볼륨감을 주며,⁵⁰⁾ 비구조적인 평면형으로 이루어진 단편들의 조합으로 의복에 공간감을 강조하면서 현대문명과 과거 전통미의 조화를 추구하였다고 본다.



49) 일본 전통 종이접기 기법

50) 박상오, op, cit, p.32



(그림14) Jean-Paul Gaultier,
「Collezioni」, Vol.84,
01-02 A/W p.255



(그림15) 청대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p.2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16) Jean-Paul Gaultier,
「Collezioni」, Vol.84,
01-02 A/W p.251



(그림17) Khaled Couture,
「Collezioni」, Vol.93,
03 S/S p.338



(그림16) Blumarine,
<http://www.firstview.com>,
03 S/S



(그림19)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Vol.92. 03 S/S p.361



(그림20) 삼성디자인넷
<http://samsungdesign.net>



(그림21) Valentino, 「Collezione i」, Vol.90. 02-03 A/W p.298



(그림22) Lanvin, 「Fashion News」, Vol.86. 03-04 A/W p.70



(그림23) 쌍영총 차마인물도
<http://www.donga.hs.kr/susuk/koreaart/ggr-a4.htm>



(그림24) Yohji Yamamoto, 「Collezioni」, Vol.89. 02-03 A/W p.294

3. 다문화성

(그림 25)는 2002 S/S Christian Dior의 작품이다.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의 오방색⁵¹⁾으로 구성된 색동효과와 (그림 26)의 일본 상(裳) 형태에 포도문양⁵²⁾의 자수가 표현된 화려함, 그리고 몽상을 즐기는 듯한 헤어의 꽃 장식이 극적으로 강조되어 표현된 여성미, 그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이 전위적인 스타일로 혼합되어 교차문화성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은 2002 S/S Christian Dior의 작품이다. 이는 과거 로맨틱 스타일인 지고소매에 소매부리 및 옷 가장자리에 화변⁵³⁾연식(花邊緣飾)을 한 하고 외부로는 한 줄의 물결문 연식을 하는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몽골족의 몽골포(그림 28)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서양 의복의 형태와 함께 존재하여 두 영역이 통합된 디자인으로, 과거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인 무시간성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9)는 2002 S/S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깃털이 달린 과장된 모자와 로우웨이스트라인의 벨형 스커트, 커프스가 달린 과장된 퍼프소매 등에서 로맨틱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밑단의 선장식 및 술장식, 가부키적 분위기의 메이크업에서는 동양적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는 단편적으로 나타난 이질적 요소들이 중첩되어 다양성과 다차원적인 새로운 시각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0)은 2002 S/S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볼륨감있는 마므뤼끄 소매(Mameluke sleeve)⁵⁴⁾와 비치는 소재에서 로맨틱한 이미지를 엿

51) 동쪽은 청색으로 나무를, 서쪽은 백색으로 금을, 중앙은 황색으로 흙을, 남쪽은 적색으로 불과 여름을, 흑색은 물과 겨울을 상징한다.

52) 페르시아의 조형미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문양중의 하나로 실크로드를 거쳐 한국 및 일본에까지 전파됨.

53) 중국의 치파오를 비롯하여, 소수민족 상의의 영구(領口)·금변(襟邊)·수구(袖口) 및 도련 등 가장자리를 색포(色布)나 화대(花帶) 혹은 자수대로 장식함을 말한다

54) 진동부터 손목까지 여러층으로 등분해서 끈으로 묶은 소매

볼 수 있으며, 적, 청, 황의 오방색과 소매의 연꽃 문양에서 동양적 이미지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레이어드된 착장의 이중성에서는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가 가능함을 표현해주었다고 본다.

(그림 31)은 2003 S/S Blumarine의 작품으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즉 나비머리장식의 로맨틱 이미지, 변형된 중국의 치파오와 일본의 오비의 동양적 이미지의 조합 등에서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수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2)는 2002-03 A/W Gucci의 작품으로, 창백한 메이크업에서 로맨틱한 이미지, 아방가르드한 서양 스타일에 동양적인 이미지의 오비의 조합은 교차문화성이 보이는 전위적인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은 2001-02 A/W Emanuel Ungaro의 작품으로, 전형적인 기모노 스타일을 변형시킨 디자인이다. 즉 단편화된 이질적 소재의 중첩을 통한 표현의 다양성과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이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4)는 2003-4 A/W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가부키적 메이크업과 형태가 과장되고 구조적으로 해체되어 재구성된 블라우스에 길상을 의미하는 모란 문양이 있는 것 등에서 동양적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관습의 일탈적인 표현으로 팬츠 중앙에 패거팅(fagotioc)과 같은 기법의 사용으로 에로틱하면서 여성스러움을 나타낸 로맨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작품을 분석한 결과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을 위한 코드의 양식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로맨틱 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

서사적 코드	내적의미	외적형식	표현기법
우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요소들간의 복합적, 지속적 조합, 변형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 창조 · 자유로운 정신적 사고 · 기발한 착상이나 놀라움이 내포된 유머러스한 희극적 효과 · 연대기적 일탈 · 인과적 질서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형태 극소화, 생략, 변형, 조합 등으로 구조적 해체, 재구성 · 균형과 대칭에서 벗어난 비구조적 실루엣과 의복의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 제시 · 형태의 왜곡 및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러디 (오리엔트적 이미지의 형태를 변형, 조작, 중첩 등으로 시도된 구조적 해체) · 형태파괴, 변형, 축소, 과장 · Tears, asymmetries · 파편화된 이미지의 조합
꺾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양의 융합으로 인간 본연의 잠재적 의식인 자연에 대한 회귀를 갈망(현대문명과 과거 전통미의 조화추구) · 인간 본래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에 대한 열망의 표출 · 동기화(그럴 듯 하지 않은 요소를 그럴 듯 하게 만드는 방식) · 자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의복의 형태, 실루엣 유지 · 변화하거나 단편들의 조합 · 비구조적인 평면형과 레어드 형태의 착장 방식으로 공간감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주(기존의 형태를 파괴, 단편화하거나 단편들의 조합) · 요소의 반복사용 ·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 묘사
다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 · 따로 또는 함께 존재하는 삶의 두가지 영역이 통합되어 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룸 · 무시간성 · 관습의 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문화성이 보이는 전위적 스타일 · 표현의 다양성과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 · 착장의 이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주 · 중첩, 반복, 조합 · 절충



(그림25)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421



(그림26) 무가 여자의 화재
장속 모습, 「일본복식사」,
p.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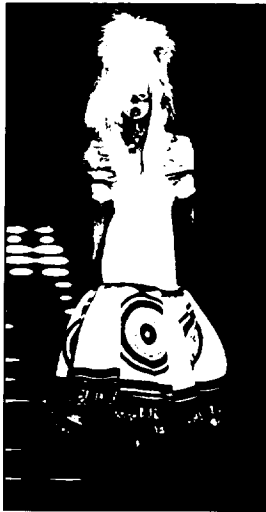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그림27)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207



(그림28) 몽골 포리아터 부녀
의 몽골포와 두식, 「중국 소수
민족 복식」, p.36



(그림29)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204



(그림30)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87, 02 S/S
p.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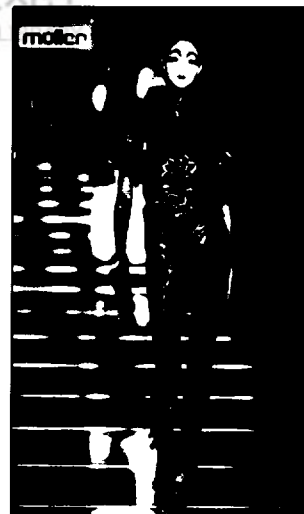
(그림31) Blumarine,
<http://www.firstview.com>,
03 S/S



(그림32) Gucci, 「Collezioni」,
Vol.89, 02-03 A/W p.156



(그림33) Emanuel Ungaro,
「Collezioni」, Vol.84,
01-02 A/W p.324



(그림34) Christian Dior,
「Collezioni」, Vol.95,
03-04 A/W p.262

I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가 다양한 생활방식과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양식도 다양하게 혼재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새로움 추구에 가치를 두고 있는 패션에서도 다양한 전위적 운동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하여 추구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글로벌 빌리지라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이 재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혼재된 예술양식을 대변하기 위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과 같이 혼재된 디자인의 용어를 정립함으로써 21세기 패션 흐름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난 새로운 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혼재된 양식의 한 신조어인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지역의 복식 특징을 차용·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셔링, 프릴, 러플, 레이스 등을 첨가시킨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디테일과 트리밍을 콜라주, 중첩, 조합, 절충 등의 기법을 통하여 표현된 디자인을 말한다. 즉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며,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장식적이고 회고적인 스타일의 선택과 오리엔트 지역 국가들의 복식형태의 특징과 민속적인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차용·재배치함으로써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를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미케 발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을 차용하여 서사적 코드를 설정하고, 현대 패션에 내러티브하게 전개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의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발성이란 불확실성이나 우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의미에서의 '그 존재, 사건, 인물 등에 있어서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 형태의 극소화, 생략, 변형, 조합, 구조적 해체 및 재구성, 그리고 형태의 왜곡 및 과장이라는 스토리로 존재가 매우 모호하고 파편화된 단편들의 조합을 통하여 확실치는 않지만 그 무엇에 의존하고자 표현된 것을 우발성이라 코드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발성은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 창조와 자유로운 정신적 사고의 표현, 그리고 기발한 착상이나 놀라움이 내포된 유머러스한 희극적 효과가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즉 파편화된 이질적 요소들간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조합, 변형에 의한 기존형태의 극소화, 구조적 해체 및 재구성, 균형과 대칭에서 이탈된 비구조적 실루엣, 그리고 의복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이 형태의 왜곡 및 과장으로 해체된 새로운 형태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둘째, 핏진성이란 현실과의 일체감, 즉 사실적 실감을 뜻하지만 현실과 꼭 같음을 의미하지 않는 일종의 관습으로,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 묘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핏진성은 '실제 있었던 일'과의 관련이 아니라 '있을 듯한 일'과의 관련 하에서, 서사물이 현실과 얼마나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습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기존형태 및 실루엣 유지, 단편들의 조합이라는 스토리로 작품 주제 결정요인인 모티브의 도입을 통하여 현실과의 일체감, 사실적 실감을 정당화하려는 표현을 핏진성이라 코드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핏진성은 인간 본연의 잠재의식인 자연에 대한 회귀와 인간 본래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에 대한 열망을 동서양의 융합으로 현대 문명과 과거 전통미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묘

사, 기존 의복 형태 및 실루엣 유지, 변화하거나 단편들의 조합, 그리고 비구조적이며 이중적인 착장방식 등으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셋째, 다문화성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이 과거의 문화적 이분법으로의 탈피를 뜻한다.

이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보면, 로맨틱 요소와 오리엔탈 요소인 파블라가 각 문화권의 단편화된 이질적 요소들의 중첩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연속된 혼합체내에서의 통합의 스토리로 다양성의 공존 및 교차문화성이 표현된 것을 다문화성이라 코드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성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성으로 따로 또는 함께 존재하는 두 가지 영역이 통합되어 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교차문화성을 전위적 스타일과 착장의 이중성으로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실험성으로 추구되고 있는 현대패션을 혼재된 양식의 예로 로맨틱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려본 것에 의의를 두었고, 서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비언어적인 패션을 서사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서사가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해석적 측면으로 본 연구를 이끌어갔다. 그 결과 현대 패션을 해석적 측면에서 서사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미케 발의 삼원적 구조주의 서사이론을 적용시켜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 복잡다단한 21세기의 패션을 해석함에 있어 서사적 이론을 접목시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논 문

- 권기영, “현대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기우, “세 가지 범주로 서사 구조 이론의 새 가능성 제시 - 미케 발의 ‘서사란 무엇인가’”, 내러티브, 제4호
- 김선영·임영자,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연구”, 「복식」, Vol.51호, No.6, 2001
- 김중신, “서사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상오, “오리엔탈리즘이 현대패션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은주·은영자,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Vol.43호, N0.3, 1999
- 서정남, “멀티미디어 매체환경과 서사의 새로운 지평”, 내러티브, 제2호
- 성향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희정, “20세기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주현, “현대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중재, “구조주의 서사 이론의 지침과 전망”, 내러티브, 제2호
- 임복임,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장소진, “서사학적 용어들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심화와 재고”, 내러티브, 제3호
- 장현숙,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로맨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채선민·유영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경향”, 「복식」, Vol.45호, No.7, 1999
- 최병우, “매체의 발달과 서사 문학의 변화”, 내러티브, 제2호
- 허정문,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스타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은혜, “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중국용단의 문양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국 내 서 적

-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21권, 동아출판사, 1983
- 박춘순·조우현, 「중국 소수민족 복식」, 민속원, 2002
-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대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 라사라 교육개발원,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도서출판 라사라
- 안명숙·김용서, 「한국복식사」, 예학사, 1998
- 이경희, 「20세기의 모드」, 교학연구사, 2001
- 이정옥외3, 「청대복식사」, 형설출판사, 1999
-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한용환, 「서사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 호희선·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 황춘섭, 「민속의상」, 수학사, 1992

국 외 서 적

- 미케 발 저,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Edward W. Said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7
北村哲郎저 이자연역, 「일본복식사」, 경춘사,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1999
「中國諸民族服飾圖鑑」, 柏書房, 1991

패 션 잡 지

- 「Collezioni」 : Vol.84, Vol.87, Vol.89, Vol.90, Vol.92, Vol.93, Vol.95
「Fashion News」 : Vol.86
「VOGUE」 : 2003 APRIL
「Collections」 「Collezioni Donna」 「Gap」

기 타

- Weekly Fashionnews 2003. 4. 28
<http://firstview.com>
http://gaebyok.wonkwang.ac.kr/%7Einmun/inmun_forum01_1126.html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 Romanticism 시대의 복식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 Folklore Fashion Fever III Far
East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 Folklore Fashion Fever IV
Morocco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 에스닉 룩의 의미와 역사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Folklore> 일본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Folklore> 한국

<http://www.sl21.co.kr/study/3.htm>

<http://www.whisky.co.kr/press/press4/fashion.html>

<http://www.wisezine.com/php/wisefile/criticismdic/text.php?serial=306>

<http://kwonsera.linuxstudy.pe.kr/>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The Narrative Interpretation depicted on the Romantic Orientalism

Beak Eun-Ji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Ae-Ran

Modern society values the pursuit of varying styles of life and individualism. As such, the trends in fashion as a social and cultural transmitter are being up a combination of varying artistic style instead of a single style where various artistic concepts are introduced.

Likewise, modern people live in a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where thousands of stories are generated. These stories not only serve to meet modern people's aesthetic expectations, but also play an industrial role that facilitates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experimental designs with a combination of varying artistic style and to transcend the limit of interpretation of the fashion trends in the 21st century. The design word mixed with the Romantic Orientalism were arranged, using the Narratology of tripartite structure by Mieke Bal as a tool for verifying this word. It was to analyze that the narratively Romantic Orientalism was depicted on the Modern Fashion.

As a new word for the mixed style, the Romantic Orientalism can be defined as a redesign in the process of borrowing and rearranging characteristics of costumes in oriental areas. Pleats, frills, ruffles, and laces are expressed through soft and womanly details, with trimmings made through collage, overlapping, combination, and compromise. The Romantic Orientalism can also be considered as a design that values emotion more than reason, selects ornamental and recollective style as a free expression of feelings, and borrows and rearranges characteristics of costumes in oriental countries and their traditional images, colors, and patterns.

For the narrative interpretation of the Romantic Orientalism depicted on Modern Fashion, this study was encoded the results into contingency, verisimilitude, and multiculture according to the theory of Meike Bal.

Contingency does not mean uncertainty or accident ; rather, it depends on something philosophically uncertain. Combined with the Modern Fashion, romantic element and oriental element, i.e., fabla, stories of minimization, omission, transformation, combination, and structural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existing forms, and even their distortion and exaggeration are genera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fragments. Since their existence is very ambiguous and fragmented, this study encoded them into the contingency that is something expressed to depend on something uncertain.

Verisimilitude means the kind of costume that is not equally the same as reality, although it means a union with reality, i.e., realistic actual feeling. It embraces detailed and realistic description. Therefore, verisimilitude has something to do with plausible things rather than with things actually done. It does not judge how

identical narrative things are to reality; rather, it believes that narrative things are judged by surrounding customs.

Combined with the Modern Fashion, romantic element and oriental element, i.e., fabla, stories of maintaining existing forms and silhouette and of combining fragments are generated. This study encoded into the verisimilitude to be expressed that tries to justify a sense of unity with reality and realistic actual feeling by introducing motives which is a decisive element in the work theme.

Finally, multicultural is not bound by customs; rather, it is transferred to the open multilateral world, i.e., breaking from past dichotomy of culture.

Combined with the Modern Fashion, romantic element and oriental element, i.e., fabla, stories of a combination of overlapping fragmented heterogeneous elements in each cultural sphere and continuous mixtures of heterogeneous elements are generated. This study encoded into multicultural that was the expression of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and cross-culturality.

This study found that the concept of the Romantic Orientalism as a mixed style was defined, and could conclude that the Romantic Orientalism was able to be interpreted by Mieke Bal's Tripartite Structure Narratology.

Key Words : mixed style, Romantic Orientalism, Tripartite Structure Narratology, Contingency, Verisimilitude, multicultural

감 사 의 글

처음 시작할 때의 막연함이 이제는 하나의 작은 뿌듯함으로 다가옵니다.

본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 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장애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멀리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논문을 심사해 주신 안명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권숙희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아껴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위에서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제 작은 결실을 전합니다.



20003년 6월

백은진 드림